

경희가 세계속으로

여유로움, 시간의 문제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최진여
미디어학 2022

저녁을 먹은 뒤, 부른 배를 두드리며 마트에 갔다. 하지만 또다시 허탈이었다. 오스트리아 마트가 문을 닫는 시각은 일곱 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문도 열지 않는다. 교환학생 초반, 한국과 확연히 다른 오스트리아식 '템포'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종종 저지르던 실수였다. "대체 일곱 시에 문을 닫는 마트가 웬 말이나", "오스트리아 워라밸이 너무 좋은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 머문 시간이 길어지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됐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 방식에 애정을 갖게 됐다.

기차에서 처음 만난 오스트리아인과 대화한 적이 있다. 타 유럽 국가에 비해 스몰 토크가 많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이날도 그런 날이었다.

그는 자전거를 가지고 내 앞에 섰다. 이름은 파비앙, 파비앙은 한국에서 온 나를 반가워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 여행 이력을 자랑스럽게 쪽 늘어놓았다. 그리고 나에게 "오스트리아에 와서 느낀 컬처쇼크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 본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다." 파비앙은 웃으며 "한국을 여행할 때 받은 컬처쇼크와 정반대"라고 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땐 모두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광경이 충격이었다고 한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다들 바쁘게 각자의 길을 가는 느낌이었을까" 파비앙은 덧붙였다. 확실히 이곳에 온 이후로 내 삶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았다. 물론 교환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태도 한몫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지금은 종강한 '서비스 디자인' 수업에서는 포탈베르크 주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고안한다. 수업은 100% 팀플로, 특별로 모여 주어진 단계까지의 과제를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수업 진행 속도가 이상하리만치 느렸다.

내게 익숙한 템포라면 팀플 첫날, 적어도 둘째 날부터는 이미 문제 분석이 끝나고 해결책 구상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계속 문제 분석 단계에 머물러 이민자와의 면대면 인터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고, 비슷한 답변이 되풀이될 미래가 눈에 보여 답답했다.

조급한 내 태도에 교수님은 "진여, 아직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예상외로 여섯 번째 이민자는 조금 달랐고, 그 인터뷰가 프로젝트 진척에 큰 도움이 됐다.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만 집중했다더라면



사진① 파비앙과 만났을 당시 타고 있던 기차. 사진②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오스트리아 사람들. 사진③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차흐 강. (사진 1, 2, 3=최진여 씨 제공)

보지 못했을 결과였다.

여름이 부쩍 가까워져 오는 지금, 한낮의 도르비른 시내를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바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린아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직장인, 아이 엄마,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가 지기 자리를 잡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다.

대낮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칵테일, 와인 등 주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맥주가 유명한 나라로 보통 맥주를 많이 마신다. 비단 여행지나 휴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날씨가 좋으면 테이블은 언제나 만석이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나, 야외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삶에 묻어나는 '여유'를 보여준다.

이곳의 삶은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같다. 고요하게, 때로는 햇살에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처럼, 오스트리아의 여유로움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 속에서 숨 쉴 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의 생활은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틔워주는 계기가 됐다.

좋은 햇볕 아래 야외테이블에서 맥주 한 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삶. 오스트리아 4개월째, 시간은 '빨리빨리'에서 느긋한 템포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나는 바쁘게 뿔박질할지언정, 잠시 멈춰 들쭉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